

조선대 노조, 광주모금회에 코로나 극복성금 630만원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양고승)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63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굿네이버스, 신안교육청에 코로나 예방키트 350세트



굿네이버스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병기)가 최근 전남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홍)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키트 350세트를 전달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서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500만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식회사(대표 이영훈)는 지난 14일 서구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목욕서비스 후원금(5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 평동농협 '2020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광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본점 회의실에서 '2020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인재에 총 3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홍범(세진여행사 대표)·선종례씨 장남 경호(변호사)군, 이응수·권진향씨 자녀 혜주(산부인과 의사)양=5월 3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피로연 18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683 데일리웨딩컨벤션.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지원신청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량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련 무료지원, 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루 주간

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목요일에 만나는 희망 가족교육 참여자=3월 19일~4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층 062-526-337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 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가운솔라=인생2막에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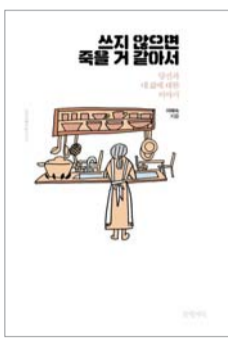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외롭고 힘들 때 글 쓰며 위로 받았죠”

음식점 '데이지' 운영 이혜숙 씨 '쓰지 않으면 죽을 거 같아서' 출간 SNS에 올린 글 출판사 눈에 띄어...고객·이웃 이야기 잔잔 현재 소설도 연재중...에 쓰는 여성 가장들에 인세 기증 계획

인터뷰를 하는 자리는 그녀가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추고 앉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바로 그 의자다. '때로 노동의 끝판은 울적하기도' 해 소서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쓰지 않으면 죽을 거 같아서' (글향아리)를 보게됐다. 30년 옥살이를 한 비전향 장기수 고(故)서옥렬 선생과 얽힌 사연이며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가 만만찮았다. 무엇보다 글마다 담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이었다. 책 날개를 보니 함평 출신의 저자는 되고 싶었던 것은 소설가였고, 영특하다고 여기던 첫째 아이를 등갓길에 잃는 아픔을 겪었고, 책임기 모임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2002년부터 회원 몇몇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혜숙(여·67)씨였다. 음식점이 공금했는데, 며칠 후 광주 윤림동의 유명한 맛집 '데이지'란 사실을 알게됐다. 페이스북에 적었던 글들을 갈무리해 펴낸 이번 책은 메이지 출판사인 문학동네 계열사 글향아리 관계자의 눈에 띄어 출간하게 됐다. 편집자가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1년간 지켜보다 책 출간을 권했다. 그는 바쁜 점심 시간이 지나면 문 앞 첫 번째 자

리에 앉아 작은 키보드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틈틈이 글을 썼다. 책에 실린 80여편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쓴 글이다. 그녀는 광주여고 재학 시절부터 펜가를 원고지에 썼고, 언제나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결혼해 4남매를 키웠고,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편입해 잠시 다니기도 했다. 젊은 시절 광주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에 오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내 소망은 한낱 꿈이었겠거니 했지요. 한때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니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 준 글쓰기였어요. 글을 쓰는 시간이 나에게 위로였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잃고 삶은 크게 흔들렸고, 이때 가까이 두던 책은 언제나 힘이 됐다. 이 동도서관의 열혈 이용자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도서관에서 '글사랑 독서회'를 만들어 '숙제하듯이'가 아니라 열렬하게, 여러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듯 책을 함께 읽고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그녀 말처럼 '느닷없이' 함께 독서모임을 하던 4명이 의기투합해 식당 '데이지'를 오픈하게 된다. 이들에 한번씩



서울에 다니며 레시피를 공부하고 함께한 동료들 덕분에 장사는 초창기부터 잘 됐고 돈도 꽤 벌었다. 현재 이씨는 윤림동 가게를 운영중이며 봉선점과



인터뷰를 한 날은 그녀의 통장에 첫 인세가 들어온 날이었다. 그녀는 인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고인에 작별 인사 못한채 시신은 비닐백 화장

코로나가 바꾼 일본 장례 풍경...온라인 불경 서비스도 등장

지난 3월 하순 도쿄 인근의 한 화장장에 60대 여성의 주검이 들어왔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사망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형 시신백에 담겼다. 화장장까지 시신을 운구하는 영구차로는 운전석과 관을 놓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특수차량이 동원됐다. 화장을 지켜본 것은 유족인 아들 한 명과 방호복을 차려입은 장례업체 관계자 두

명뿐이었다. 아시아신문은 15일 코로나19가 일본의 장례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고 전했다. 유족이 고인에게 제대로 고별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족을 위로하는 밤샘 조문 문화도 사라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할 경우 비무과성 백에 담아 밀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감염 예방 조치를 한 상황이라면 고인과 대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보호복



스마트폰 독경 서비스.

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운구를 꺼리는 장의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도쿄도가 운영하는 미즈에(瑞江) 장례식장에서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을 화장할 때는 장례업체를 통해 유족에게 입회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베(神戸)시는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폴리에틸렌과 나일론 소재로 만든 투명한 시신용 백을 확보해 지난월부터 관내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 나눠주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다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장례식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생기면서 문상객 없이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스마트폰 중계로 불경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중국 우시시 시산구, 광주 북구에 코로나 방역물품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최근 중국 우시시 시산구(無錫市 錫山区)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전달받았다. 북구와 시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우호협력도시로 인연을 맺어 왔다. 북구는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마스크 2400매를 시산구로 보냈다. 시산구는 답례로 수술·덴탈용 마스크 3만매와 의료용 방호복 600벌을 보냈다. 지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최근 북구청에 도착했

다. 시산구의 장친(蔣群) 상임위원장은 서한에서 "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수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양국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협력의 뜻을 전달했다. 북구는 마스크 3만매는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에게, 방호복 600벌은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 지역 기업과 함께 시장개척단 파견 등 두 도시 간 경제교류를 위한 준비를 했었다"며 "이번 상호지



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